지자체 보조금 지원지침 '오락가락'

행안부, 지침하달 후 예외조항 추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물의 빚자
"문화재 특성 고려해서 추가" 해명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자본보조 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정하고 이를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한다'는 예산 집행기준을 하달한 이후, 다시 '문화재 공사의 경우 예외로 한다'로 조항을 추가해 지침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나타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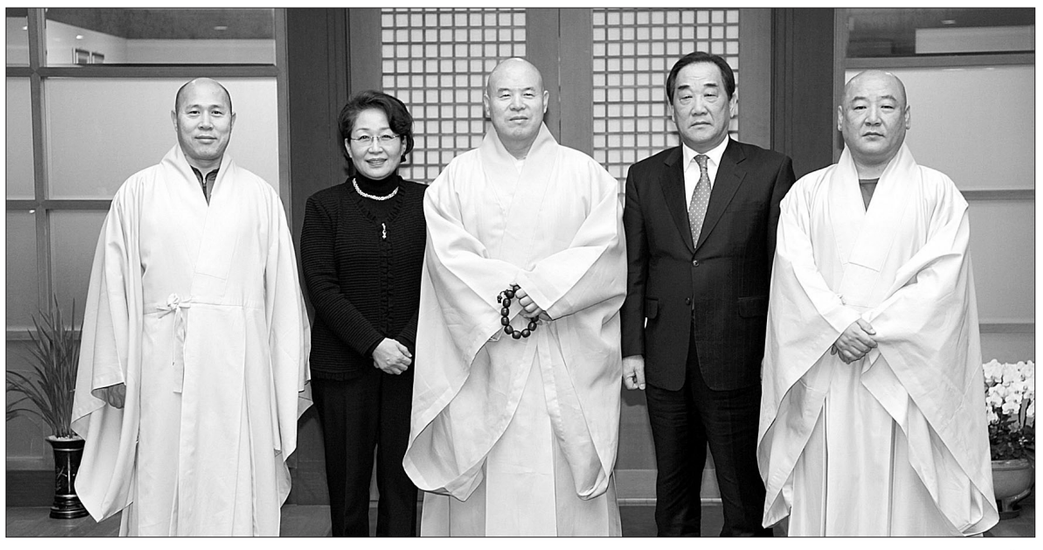
행안부는 이달 초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17일 조계총림 송광사를 비롯해 호남 지역 사찰들도 해당 공문을 받게 됐다.

새로운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단체에서 직접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업체가 계약을 체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찰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신축할 때는 지자체가 직접 입찰을 통해 민간 업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사이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남지역 한 사찰 측은 "지자체가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사찰에서 참여할 여지가 줄어들고 사찰 의도와는 다르게 불사가 진행되거나 전각 배치의 균형이 깨지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침이 하달된 지 얼마 후인 지난 21일, 행안부는 다시 공문을 통해 "문화재 공사나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 공사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다.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하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예외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예외조항 추가와 관련해 최두선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은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일반 건설공사 업체 선정 시 문제가 많아 지자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지침을 발표했던 것"이라며 "문화재 공사나 문화재 관련 시설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엄태규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4일 불교방송 김영일 사장과 불교TV 구본일 사장의 신년인사를 받은 자리에서 "불교계가 합심해 개국했던 초기 정신을 잘 살려 공심을 갖고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상·전파·지면매체 합심하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BBS 불교TV 사장에 당부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과 구본일 불교TV 사장, 불교신문 주간 장적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미디어홍보특보)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지난 24일 예방하고 종합미디어로서 발전 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계 방송 및 언론사 사장들에게 "불교계가 합심해 개국했던 초기 정신을 잘 살려 공심을 갖고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민영미디어렙의 출현 등 미디어 환경 전반이 변화되는 것과 관련, "종단이 콘텐츠 제공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미약한 역량이지만 불교계의 영상매체 전파매체 지면매체 등이 모두 합심하여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방송사의 개국 당시 종단이 최우선 불사로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가까이서 종단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단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종합미디어의 영향력 강화 현실과 관련,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미디어 위원 등 전문가 자문 하에 종책적 방향을 고민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TV의 종단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와 관련 종단 추천 인사 2~3명의 이사 참여를 조언했으며, 불교신문에 대해 '구독자 10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은 불교종합미디어의 큰 그림에 종단이 더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불교방송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IPTV에 대한 종단의 관심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배석했다.

김종찬 기자 kimjc00@ibulgyo.com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이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구제역 피해지원금 기탁

도선사 '아름다운 동행'에 1000만원 전달

서울 도선사가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종단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은 지난 24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구제역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선묵스님은 이 자리에서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108산사기도회 안성 칠장사 순례가 현지에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인해 연기되는 등 구제역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고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도선사의 성금기탁을 계기로 불교계에서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으면 농가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제역 피해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남북 민간교류 지속돼야"

자승스님, 김상근목사 예방자리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인도적 남북민간교류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근 6·15 남측 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교류가 절실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한 만큼 불교계가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는 종단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남북관계가 풀리면 인도적 민간교류사업과 남북불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東大 개방이사 추천위 구성
위원에 법타·일문·종성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문스님, 중앙종회의원 종성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정련스님)은 지난 25일 259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은 이사장 정련스님과 이사 혜림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정련스님은 오는 3월11일, 혜림스님은 2월7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추천위원회는 법인이사회에서 추천된 3인과 대학평의원회 2인,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들은 27일 회의를 갖고 임기만료된 2명 이사의 2배수인 4명을 확정하게 된다.(25일 현재)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시행세칙 변경 △교원인사 △2010년 각급기관 추경예산 승인 △수익용 기본재산 전세권 설정변경 △전산원 운영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국제구호봉사 '추천'

지난해 세밑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주최 '한국-캄보디아 우정 만들기 프로젝트.' 50명의 우리나라 중고생과 교사, 의료진이 캄보디아 오지에서 펼친 해외협력봉사를 동행 취재했다.

7박8일간 이들이 머문 곳은 태국과 인접한 국경지역 오도르민제이 주(州) 삼롱 시(市) 외곽 카세테뽀띠봉 초등학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변방이었다.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맨발의 아이들은 개가 낮잠을 자고 닭이 모래를 쪼는 운동장을 뛰어놀았다.

어둡고 목마른 땅이었지만 현지 아이들은 그 땅을 욕하거나 서러워하지 않았다. 한국인 손님들은 가난에 얽매이지 않는 그들의 웃음과 활기를 흔쾌한 마음으로 같이 즐겼다. 봉사단은 도시락밥에 반찬 한두 가지로 매 끼니를 때웠다. 특식으로 컵라면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환경은 척박하고 생활은 불편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이 없었다. 누군가는 "특별한 행운이나 소득이 없어도 하염없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더 많이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병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사의 제목을 '베풀러 왔다가 오히려 배우고 갑니다'라고 뽑았다. 사교육의 연장일 뿐인 겨울방학, 입시에 지친 학생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에 즐거워하고 고마워했다. 슬기로우면서도 자비로운 자녀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추천할 만한 경험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범어사 승가대학 신입생·편입생 모집공고

범어사승가대학은 화엄종주 의상조사의 창건이념을 계승한 「화엄경」사상과 경허선사께서 오래 주석하시면서 비롯된 선풍을 계승한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 전통교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현실에 맞는 종단의 새교과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전통에 입각한 현대의 발전된 승가교육을 이끌어가겠습니다.

■ **모집정원** _ 1학년 ○○명 / 2학년 ○○명 / 3학년 ○○명

■ **모집기간** _ 불기2555(2011)년 **2**월 **18**일(금, 음1.16)
~**3**월 **20**일(일, 음2.16)까지(※ 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_ 1) 입방지원서 및 서약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각 1부
2) 은사스님 추천서 2부
3) 건강진단서(종합병원) 2부
4) 승려증(행자교육필증, 수계증명서) 사본 2부
5)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각 2부
6) 사진(만의복장, 2×3규격) 4장
※ 서류양식은 범어사 홈페이지 참조(www.beomeo.kr)

■ **준 비 물** _ 대가사, 만의(사미), 장삼, 발우

■ **전 형** _ 서류심사, 면접

■ **문 의 처** _ 범어사 승가대학 051)508-3127
범어사 종무소 교무국 051)508-3122~5

■ **교 통 편** _ 부산 노포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지하철 1호선 노포동역(승차) → 1구간(2분 소요) 범어사역(하차) 5, 7번 출구 → 범어사행 시내버스(90번) 수시운행(운행간격 15분)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주지 여산 정여 · 승가대학 학장 초해 용학